

# 기본을 바탕으로 새로운 발전 추구하는 충남 금산 '응지농산'

▲ 2005년 아름다운 농장사진 콘테스트 우수상 입상한 충남 금산에 위치한 '응지농산' 전경

취재 - 박기진

**집을** 지을 때는 뒤에 산이나 언덕이 있고, 앞에는 강이나 개울·연못·논 등 물이 있어야 함은 풍수지리설에서 택지(宅地)를 정할 때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배치이다. 전통 풍수에서 집 뒤의 산은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 지맥이 있는 곳이며 지맥은 산을 따라 흘러 내려와 집에 생기를 불어넣는데, 집 뒤에 산이 없으면 산천의 생기가 집으로 전해지지 않는다. 이는 생기가 바람을 만나면 흩어지고, 물을 만나면 멈추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 뒤의 산은 바람을 막아주고 집으로 들어온 생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집 앞의 물은 산으로부터 흘러온 땅의 기운이 모이는 곳으로, 땅의 기운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최고의 배산임수 위치에 있는 충남 금산에 응지농산은 그야말로 금산의 정기를 그대로 받고 있었다.

## '응지농산' 을 시작하기까지

응지농산의 문정우 사장은 1988년도에 모든 10두를 가지고 시작하여 19년이 흐른 현재는 모든 600두에 규모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문정우 사장은 신구대학 축산학과를 졸업하고 낙농목장을 경영할 생각이었으나 졸업 후 한달여간에 양돈장 실습을 통해 돼지에 관심을 갖고 양돈장을 운영하는 기로 마음먹었다고 한다. 처음엔 양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발정체크도 할 수 없었으며 돼지습성 또한 알지 못해 분만틀에 임신돈을 올리는데만 6명에서 5시간이 넘게 걸렸다고 한다.

이러한 무지와 경험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문정우 사장은 시간이 날때면 책을 보며 연구했으며 기회가 될 때마다 선진양돈을 직접보고 느끼기 위해 국내외 선진양돈장을 찾아 다녔다고 한다. 꾸준한 노력과 실험결과, 현재는 수태율 95%, 분만율

문정우 웅지농산 사장은 돼지에 대한 끊임없는 실험을 통해 모돈이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특히 사료급여량의 조절을 통해 모돈의 체형을 항상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주일에 한번씩은 꼭 모돈체형을 관리할 것을 강조한다.



88~90%를 유지하고 있을만큼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 깨끗한농장은 양돈장운영에 기본

양돈장의 냄새는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맡는다고 하였다. 웅지농산은 대한양돈협회에서 주최한 2005 아름다운 농장사진 콘테스트에도 우수상을 수상했을 만큼 깨끗하고 단정한 농장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문정우 사장은 “소비자가 있으므로 양돈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실천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양돈장에 대해 냄새나고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면 그만큼 양돈가에게도 언젠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며



▲ 아름다운 조경 가꾸기와 일반사택과 같은 돈사형태로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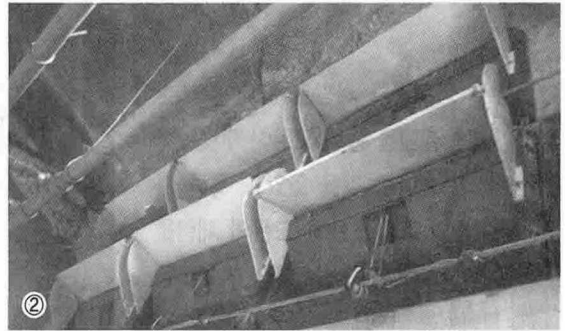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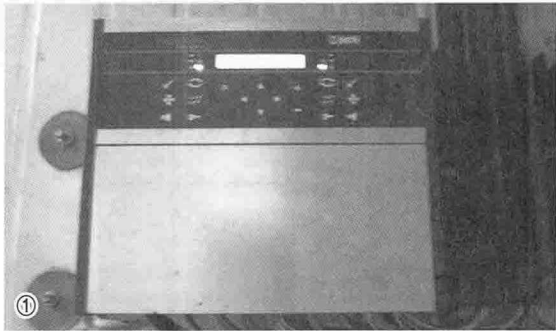
이미지 개선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 후보돈의 철저한 격리와 순치

웅지농산은 후보돈 관리돈사가 농장에서 600m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외부농장에서 구입한 후보돈을 효율적으로 기존 돈군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철저한 격리와 순치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 기존 돈군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돈군과 격리 후 기존농장의 시설과 여건에 맞는 격리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었다. 격리 2주후부터는 노산차 모돈의 분변을 적당량 넣어주고 농장의 백신 프로그램에 맞추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었다. 문정우 사장은 “모돈의 번식성적은 후보돈 시기에 관리에 의해서 좌우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후보돈의 철저한 관리와 순치가 농장의 생산성과 외부로부터의 질병차단에 중요하다.”며 후보돈 관리에 의한 초산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 모돈관리가 농장의 생산성 좌우

문정우 사장은 “건강하고 튼튼한 자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모돈부터 건강해야 한다. 모돈이 건강



▲ ① 돈방 온도 및 환기 컨트롤러 ② 환기 입구. 돼지의 일령과 체중에 맞는 온도와 환기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으로 쉘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문정우 사장은 환기에 문제점이 없는지 수시로 연막제등을 이용해 공기의 흐름을 점검하고 있었다.

해야지 질병에 대한 고리도 끊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모든의 산차관리와 바디 컨디션(BCS)을 철저히 관리하여 강건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건강한 자돈이 생산되는데 최선을 다했다. 웅지농산은 임신돈 1두, 1두씩 철저히 개체 관리를 하며 문정우 사장이 매주 1회씩 체형을 점검하고, 사료량을 조절하는 업무는 직접 주관한다고 한다.

문정우 사장은 “매주 전체 모돈을 직접 보면 체형은 물론 건강상태, 공태돈, 발정상태 등 전반적인 관찰이 가능하다.”며 모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모돈의 체형관리를 중요시 하며 “임신단계에서의 체형관리 미숙은 분만후 뿐만 아니라 다음 산차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했다.



▲ 분만사에서 모돈이 분만 이후에 과비가 되지 않고 자기 체형에서 조금의 손실을 가지면서 많은 사료를 먹고 이유 자돈의 체중을 최대한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 남들과 다른 사양관리

체형허약은 생시체중 저하, 위축 및 사고증가, 이유 후 모돈 도태 등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비만은 분만시 난산우려, 저유증·무유증, 포유중 사료 섭취량 감소 등 여러 가지 피해를 가져 올 수 있다.

이런 체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료관리가 중요하다. 웅지농산은 이러한 임신돈의 사료관리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양방식과는 다르게 하고 있었다. 우리는 분만 말기에는 모돈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분만 전 7일간은 사료량을 점차 감량 시킨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웅지농산은 이와 반대의 개념으로 가고 있었다. 웅지농산은 1일 2회의 사료급여 시 충분한 양을 섭취하였으나, 사료를 남기는 양이 많고 포유기간 21일동안 모돈이 야위기 시작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한다.

여러 가지 사양 실험을 통해 문정우 사장은 “사료량을 한번에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유지시키고 횟수를 늘려 섭취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섭취횟수를 늘려 주는 것이 모돈의 영양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며 사료섭취 횟수를 늘려줄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오히려 임신말기에 사료량을 유지시켜 정상포유기간 동안에 빠지는 영양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러



▲ 복도 입기구에는 쿨링패드를 설치하고 물을 흐르도록 고안하였다. 음압을 이용하여 강제적으로 공기를 뽑아냄으로서 돼지체표에 증발쿨링효과를 노리는 방식으로 한여름 온도하강에 효과적이다.

한 충분한 포유는 자돈 건강에 시초라고 한다.

또한 이유후의 오는 스트레스, 통증 등으로 인한 모돈의 사료섭취량 감소를 극복하여 재귀발정이나 다음 산차에도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특히 저산차 모돈의 경우 임신말기에 관리 프로그램에 유의하여야 노산차로 진행됨에 따라 모유량 감소를 최소화 시키며 사료 급여량 조절에 따라서 포유자돈의 생시체중이 변화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임신말기에 사료과다 섭취는 포유기간 사료섭취량 급감이 일어 날 수 있으며 모돈의 외음부 종대 및 유방부종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임신말기 사양관리는 사료섭취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강정사양을 하지 않고 섭취량을 유지 시키면서 섭취횟수를 늘린다는 개념으로 과비를 허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 제대로 된 단열관리

돈사의 단열은 사실상 환기 그 자체보다 더욱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양돈인들은 부족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4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열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연중 많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또 단열은 겨울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름철 혹서기에도 필요한 것으로 입기나 배기 등 꼭 필요한 부분만 제외한 전체벽과 지붕부분을 단열재로 씌우는 것은 필수조건이다. 웅지농산은 블럭을 기초로 지어졌으며 내부는 입기구와 배기구를 빼고 벽면에서 지붕까지 우레탄을 이용해 단열하였다. 또한 돈사에 열전도율이 낮도록 설계되었으며 항상 셋바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였다. 이러한 건축의 단열로 돈사내에 라디에터형의 난방시설 없이 보온등만으로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 난방시설 없이 보온등만으로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사료급이기(원형급이기)는 충분히 설치해 사료섭취에 대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있었다.

## 농장을 떠나며

동절기를 맞이하여 양돈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환기, 온도관리 등 돈사관리에 세심하게 신경 써 돼지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웅지농산은 아름답고 깨끗한 농장, 농장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모습, 그리고 기본사양관리를 바탕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양돈**